

순천시 중대재해 제로화 안전도시 박차

종합계획 수립 예방 대책 추진

사업장 494개소 정기 안전 점검

현장 점검반 민간 자문단 활용

순천시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2026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제로화를 위해 ▲시 산하 공무원 및 근로자 교육 ▲각종 사업장 안전점검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민간 안전 전문가 활용 도급·용역·위탁 특별 점검 ▲아차사고 발굴 등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종합계획에 따라 시는 시 산하 팀장급 관리감독자와 현업업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관리감독자(335명) 교육은 외부 전문 안전교육 기관에 위탁해 안전 수칙 준수, 현장 위험관리 등 연간 16시간 이상 법정교육을 실시한다. 현업업무 근로자(1236명)는 관리감독

자가 매월 2시간씩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해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시 산하 중대재해 사업장 494개소에 대해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해 근로자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시설별 안전 점검 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시 안전 점검을 병행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상시 관리해 나간다.

특히 고위험 도급·용역·위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안전관리 자문단을 활용해 중대재해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고, 법적 의무이행 사항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시급성이 높은 위험 요인은 즉시 개선 조치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예산 반영이 필요한 개선사항은 예산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부주의나 현장 장비 결함 등의 원인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으나,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던 아차사고를 집중 발굴·관

리한다.

안전 이론인 하인리히 법칙(1:29:300)은 한 건의 중대재해 발생 이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아차사고가 존재한다는 이론으로, 아차 사고를 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할 경우 중대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업업무 종사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작업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 이전 단계에서 위험요인 제거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 부서와 읍·면·동에 전파해 부서별 상시 안전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부서장 중심의 현장 상시 점검을 강조하고, 이를 상·하반기 정기 점검을 통해 종합계획이 서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 부서와 읍·면·동에 전파해 부서별 상시 안전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부서장 중심의 현장 상시 점검을 강조하고, 이를 상·하반기 정기 점검을 통해 종합계획이 서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26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과 근로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 시민 참여형 안전 환경 조성 본격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다각 노력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시민 스스로 안전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생활 중심 안전문화운동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사진>시는 가정, 학교, 직장, 교통 등 생활 전 영역에서 안전수칙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예방 중심 안전문화를 시민 체감형으로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캠페인·홍보·진단·보험 등 5개 분야를 연계한 시민 참여형 안전 환경 조성에 나선다.

먼저, 다양한 연령대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안전교육 ‘맞춤형 안전학당’을 운영한다. 지난해 65세 이상 어르신 6500여 명과 미취학 아동 24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상시 운영을 통해 안전 행동 실천을 제고한다.

또한 계절·주제별 ‘생활 속 안전문화캠페인’과 ‘안전사고 예방 홍보방선’을 병행해 시민과 방문객의 사고 예방 의식을 높인다. 특히 섬박람회 대

비 안전 행동 요령을 쉽게 전파하고 민·관 합동 활동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작년에 이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 인식도 진단’을 실시해 개인별 재난 대응 수준을 점검한다. 생활안전·사회재난·자연재난 등에 대한 인식을 정밀 분석해 맞춤형 안전교육과 예방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수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이중 안전망을 구축한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총 30개 항목을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등 3개 신규 보장항목의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올해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중심으로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방 중심 안전문화운동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생활 속 작은 안전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구례산수유꽃축제

3월14일부터 9일간 개최

참여형 콘텐츠 대폭 확대

구례군이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27회 구례산수유꽃축제 기본계획 보고회를 열고, 축제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을 논의했다.

올해 축제는 ‘영원한 사랑, 구례에 피어나는 노란 설렘’을 주제로 3월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산동면 지리산온천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지리산 자락을 따라 펼쳐지는 산수유꽃 군락은 황금빛 봄 풍경을 연출하며 방문객들에게 감성적인 봄 여행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축제는 꽃 본래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고, 체험·문화·지역 이야기가 어우러진 감성형 축제로 운영된다.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관리 체계 정비 등을 통해 관광객 중심의 축제 공간을 마련한다.

개막공연, 버스킹, 전통 공연을 비롯해 산수유 열매따기, 꽃길 걷기, 산수유차 시음 등 다양한 프



구례산수유꽃축제가 3월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산동면 지리산온천관광지 일원에서 열린다.

로그램이 진행되며, 구례 굿즈 전시·판매,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등 참여형 콘텐츠도 확대된다.

또한 개막식을 오후 3시로 옮기고, 솜뿔 영상 콘테스트와 주민 참여 공연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드는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구례군은 산수유꽃축제와 구례300리 벚꽃 축제를 연계해 구례를 대한민국 대표 봄꽃 여행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구례300리 벚꽃축제는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사업

13억원 투입 건축물 285동 정비

고흥군이 군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관광·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건축물 285동을 대상으로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축산·연호도·우도 등 주요 관광도와 시가지 도로변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객 방문이 잦은 지역과 시가지 주요 도

로변을 중심으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집중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해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가 포함된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이며,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과 지붕개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이며, 희망자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정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곡성물, 설맞이 복 가득 최대 40% 할인 특별전

곡성군이 설 명절을 맞아 온라인 쇼핑물 곡성물에서 ‘곡성물 福(복) 가득 최대 40% 할인 특별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전은 지난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입점 업체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 곡성물 전 상품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해 명절 선물로 활

용하기 좋은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설 명절 특별전과 연계해 카카오톡 친구 추가, 구매 후기 참여, 전 상품 무료배송 등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함께 운영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쇼핑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신규 고객 유입과 재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곡성물은 2023년 9월 개장 이후 지역 농·

특산물의 온라인 유통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현재까지 누적 매출 25억원을 돌파했으며, 회원 수 3만6000여명, 누적 방문자 수 154만명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 민관협력 캠페인 ‘곡성물 아이사랑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 소비 촉진과 공공 쇼핑물의 기능 확장에 기여해 왔다.

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기획전과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개별 관광객 인센티브 ‘광양관광 미션투어’

광양시가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개별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광양관광 미션투어’를 시행한다.

‘광양관광 미션투어’는 개별·소규모·체험형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일반미션과 특별미션, 별빛캠핑미션 등 다양한 맞춤형 미션을 통해 관광객 참여 확대를 도모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6일부터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고 연 1회만 지원돼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특히 광양매화축제 기간에 방문하는

팀을 선착순 60팀으로 제한해 접수할 예정이다.

일반미션은 관광지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방식으로, 관외 거주 내·외국인 관광객이 1~5인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팀 대표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 팀은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 카페, 유료 체험시설 등을 이용해 15만원 이상 소비하고 관내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SNS 인증 등 모든 미션을 완료하면 팀당 8만원의 인센티브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알로에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